나의 간단한 생물 달력 월기

최 종 욱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부
수의사/동물컬럼니스트
lovenat@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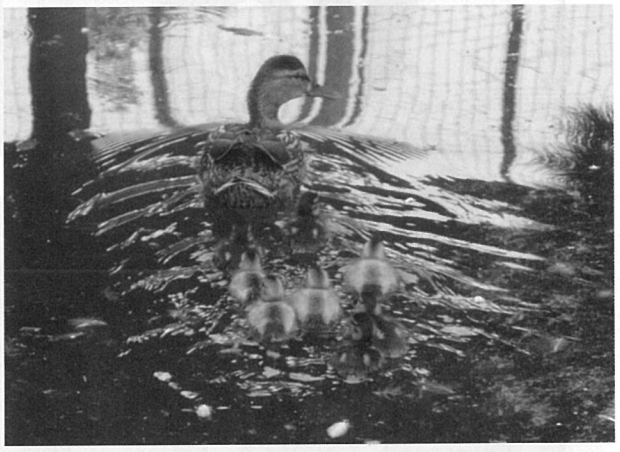
1월 – 곰이 새끼를 낳는다. 겨울잠도 안자는 동물원 곰들도 야생에서처럼 꼭 1월 중순께에 새끼를 낳는다. 아마 아직은 야생을 포기하기엔 너무 동물원에 갇힌 기간이 짧나보다. 약속이나 한 듯이 전국의 동물원에서 일제히 각종 곰(불곰, 흑곰, 반달가슴곰 등 – 동물원에서 북극곰 탄생은 아주 아주 드물다.) 탄생 소식이 들려온다. 가끔 폭설이 내리면 물새장 그물지붕이 무너질까봐 노심초사다. 아프리카 동물인 기린이나 얼룩말도 영하의 기후이라지만 해가 있는 동안은 운동장에 일부러 내어놓아 온대기후에 적응케 한다. 눈 속에 뛰어노는 얼룩말 무늬가 매우 인상적이다.

2월 – 깃털이 모두 빠진 지난 여름 후, 겨우내 꽁지깃털을 정성스레 길러왔던 숫 공작들이 드디어 화려한 날개 짓을 시작한다. '쓰르륵' 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그들의 현란한 꽁지깃 날개 쇼는 고정된 듯 움직거리고 펼친 듯 오무려 진다. 이제 동물원 앞 저수지의 얼음도 모두 풀리고 겨우내 반가운 손님으로 찾아와 잘 지내온 원앙과 청머리오리, 물닭 들도 마지막 본격적인 짝짓기에 물가마저 소란스럽다. 이런 작은 소동은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사무실 뒤 포플러 큰 나무 위에 까치들이 생가지를 물어다 옛 둥지위에 열심히 새둥지를 짓고 있다.

3월 – 적록 사슴의 큰 뿔이 어느 날 툭 하니 방사장 한가운데 덩그러니 떨어져 있다. 사불상 뿔은 2월에 진즉 떨어졌다. 아무리 힘을 가해도 억지로는 떨어지지 않는 작년 치 굳은 뿔은 새로운 연한 뿔의 기초가 자라나면서 아주 가볍게 밀려서 떨어진다. 약한 것들이 뭉쳐 강한 걸 이기는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있다. 사슴뿔이야 말로 동물 속에 깃

들인 식물상이다. 봄에 마치 식물처럼 연하게 자라나 여름에 성숙해지고 가을에 뿌리가 깊어지다. 이듬해 봄이면 새 가지가 자라난다. 원시바다에는 식물도 동물도 없었다. 산호도 뿌리를 뻗어 부착돼있지만 먹이를 잡아먹는 동물이다.

4월 – 언제 모르게 저수지의 청머리오리, 물닭들이 모두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작은 날개로 날기도 힘겹게 보이련만 그 머나먼 길을 어떻게 날아가는지, 무사히 여행을 마치길 빌 뿐이다. 그래야 올 겨울에도 저수지가 외롭지 않지. 초식동물들이 무플론 산양을 선두로 드디어 일제히 새끼를 낳고 있다. 그들은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푸른 풀이 돋을 때로 분만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동물들이다. 새들 역시 본격적인 포란 활동에 돌입한다. 얌전하던 캐나다 기러기 수컷들이 그의 아내와 알을 위해 무섭도록 용감해지는 때이기도 하다.

5월 – 청호반새가 돌아왔다. 저수지를 돌 때마다 이맘때쯤 그 예쁜 새가 혹시나 올까 기대 반 실망 반으로 오매불망 기다렸다. 올해는 그것도 쌍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잠깐도 인간에게 깊이 감상할만한 거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저 햇빛을 받아 광채 나며 날으는 비단 한 조각만을 순간 볼 뿐이다. 사무실 처마 끝 참새들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날마다 아침이면 층계참에 크고 작은 전사자들이 쌓여서 무덤 만들어주기 바쁘다. 참새들은 결코 평화주의자들이 아니다. 까치 새끼들의 비행연습이 시작된다. 뒷산 산책길에 만나는 청솔모 새끼들이 사람이 오면 어찌 할 줄을 모르고 나무위에서 방황한다. 개미들의 짝짓기 여행도 시작된다.

6월 – 추운 고비사막 출신 쌍봉낙타 봉봉이의 털이 확 다 베껴져 나갔다 이제 밋밋한 사하라 출신 단봉낙타 봉이도 봉봉이의 털을 부러워 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참고로 쌍봉낙타는 겨울에 멋진 긴 털이 자라 추위를 막아준다. 사슴들 역시 거의 스포츠형의 짧은 털 스타일로 바뀌었다. 사람털도 이렇다면 따로 대머리 걱정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여름이면 모두가 일시적인 대머리 테니 말이다. 이제 한 달에서 두 달이 지난 초식동물들의 새끼들이 본격적으로 풀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원숭이들의 출산릴레이도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말이 모성애지 원숭이들 중에는 새끼를 잘 못 키우는 경우가 많아 나 같은 사람이 괜히 고생(인공포육)한다. 밤꽃 향기가 정말 알싸하다. 왜 밤나무는 이런 원초적인 사람 냄새나는 향기를 풍길까? 동물이나 식물도 따져보면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은데, 어쩜 향기마저 이리 닮은 건지!